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21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3 Vol. 21. No. 1

http://dx.doi.org/10.18064/JKASI.2023.21.1.47

국내 아동작업치료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길영숙*, 유두한**

*건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아동 작업치료영역에서 기관별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 사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국내 아동작업치료사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구성은 Lee, Hong과 Park(2018)와 Kim(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아동평가도구 내용에 맞추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3주 동안 Google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분석은 일반적 특성, 평가관련정보, 평가도구 사용현황, 지식수준 및 교육 참여 욕구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평가도구 현황은 t-test를 사용하였다.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은 Exc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기관별 사용하는 평가도구 수는 복지관이 11.1개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의 경우 대학병원이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재활병원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의원, 센터, 복지관, 어린이집은 순서 간의 차이는 있으나 Sensory Profile과 임상관찰 사용빈도가 많았다. 평가도구에 대한 지식수준과 교육참여 욕구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0명(44.8%)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42명(62.7%)이 대체로 자신의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매뉴얼 기반에 평가도구 사용의 중요성 질문에 66명(98.6%)이 긍정적인 답변에 응하였고, 66명(98.6%)이 평가도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아동작업치료영역 기관별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의 사용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별 다양한 평가도구 도입 및 다양한 평가도구 교육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아동작업치료, 작업치료, 평가도구

교신저자: 유두한(glovia@konyang.ac.kr)
접수일: 2023.01.05. ‖ 심사일: (1차: 2023.02.06./ 2차: 2023.03.21.) ‖ 게재확정일: 2023.06.22.

Ⅰ. 서 론

2021년 기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된 작업치료사는 15,453명이며,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다(KAOT, 202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0). 또한 2020년 기준 작업치료학과 졸업자는 약 1,7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1). 전체 작업치료사 중 아동작업치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9%이며, 아동과 성인 분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수를 감안하면 이 수치는 크고, 아동작업치료 분야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 넓을 것이다(Lee, 2011; Yoo, Lee, Kim, & Cha, 2012).

아동작업치료영역의 평가도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Sensory Profile(SP) 11.6%,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DDST) 4.7%,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 3.5%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신체 구조와 기능요소를 평가하는 도구였다(Kim & Min, 2016). 또한 대부분의 기관과 치료사들이 시간 소요가 적은 평가도구와 설문지 형태의 평가도구를 주로 사용하며 아동작업치료사가 평가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주어진 평가시간 부족(43.1%), 평가공간 부족(26.3%), 기관 내 보유한 평가도구 부족(25.5%), 정확한 도구의 사용법 및 경험의 부족(16,1%) 등으로 나타났다(Jo, Jeong, Choi, & Yoo, 2015; Kim, 2015).

아동작업치료사는 관련제도나 제공되는 기관(환경)에 따라 직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 세팅, 지역사회 세팅, 학교 세팅으로 나누어 일하고, 각 세팅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Choi & Hong; 2017; Hong & Kim, 2012; Lee, Park, Kim, Noh, Yoon, & Lee, 2015). 병원의 경우 뇌병변이 주된 치료대상자로 평균 30분씩 9명 이상을 치료하고, 센터는 발달장애아동 치료 및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근무하는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Kim, 2015).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센터와 복지관은 평균 1회 50분 실행되며, 5명이상에서 7명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한다(Hong & Choi, 2018).

Park과 Yoo(2002)의 한국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영역에서 DDST 51%,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MVPT) 56.3%, SP 14.6%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Yoo, Jung, Park과 Choi(2006)는 DDST 95%,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 35.8%, SP 61.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Wee-FIM) 74,6%로 많이 사용되었다. Kim(2015)의 국내감각통합치료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DDST 79.3%, SP 50%, WeeFIM 45.3%, COPM 40.5%,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Lee, Hong과 Park(2018)의 국내 아동작업치료 평가도구 현황에서도 WeeFIM 57.1%, SP 93.3%, DDST 92.4%, 임상관찰 89.5%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관형태에 따라 직무와 치료대상자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인 Lee, Hong과 Park(2018)의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 동향과 Park과Yoo(2002), Yoo, Jung, Park과 Choi(2006)등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과 아동 작업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가도구 동향, 영역별 평가도구 사용현황, 개발될 필요가 있는 평가도구를 알 수 있었으며, 평가도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관 내 배치된 평가도구가 한정 되어있어 아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가유형과 초점은 임상세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사용하는 평가도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Kim, 2015; Park & Bae,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작업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기관별 사용하는 평가도구 실태를 파악하고 작업치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 내 다양한 평가도구 도입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아동영역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규모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상관분석(one-tail, correlation p H1: 0.5, α-error: 0.05, Power: 0.80) 67명의 연구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산출되었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설문은 편의표본추출로 시작하여 눈덩이 표본추출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설문응답에 참가하겠다고 한 응답자를 통해 1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응답자들의 추천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 개인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노출되지 않을 것과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심의번호 : KYU-2022-05-012)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

2. 연구과정

1) 설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Lee, Hong과 Park(2018)의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동향 연구와 미국작업치료협회의 평가도구 지침서(Asher, 2014)를 참고하여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치료사들의 평가도구에 대한 지식 및 평가도구교육 참여 욕구에 대한 문항은 Woo, Chang, Cha와 Oh(2009)가 국내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하장애 재활치료 실태조사 설문과 Kim(2015)의 국내 감각통합치료 실태에서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총 4영역 25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4문항, 근무기관에서의 평가특성 8문항, 근무기관에서 보유 및 사용하는 영역별평가도구 10문항, 평가도구에 대한 교육이수사항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관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명을 묻는 문항과 영역별 평가도구에서 보기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평가도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지막번호 마다 기타항목을 만들어 개방형 질문을 허용하였다. 해당 설문지 구성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정회원이면서 감각통합관련분야 5년 이상의 전문가 2명이 각각의 특성으로 나누어 해당 내용의 설문문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본 연구는 2022년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현재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아동작업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구글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정한 후 응답자들의 연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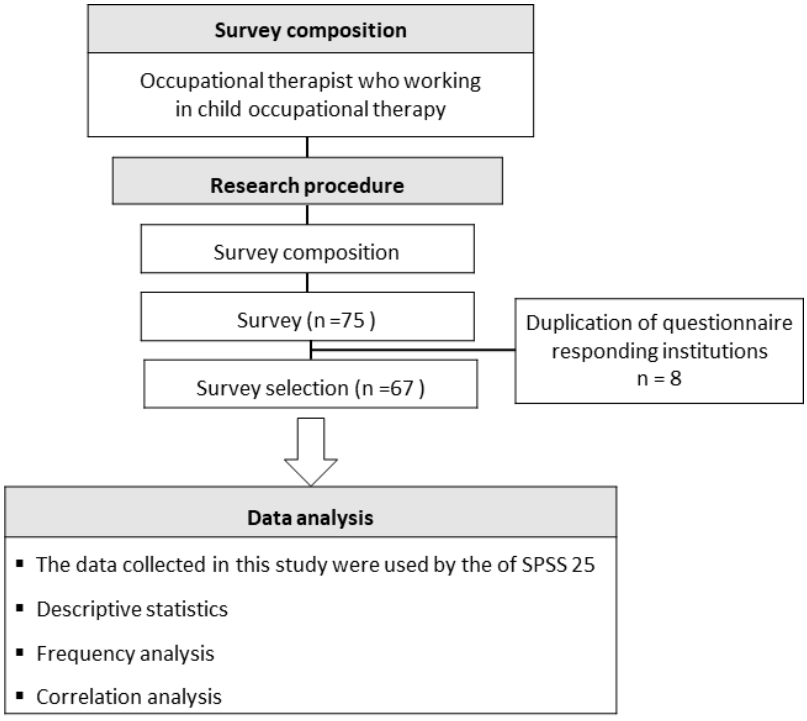

Figure 1. Flowchart of study

추천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응답기관이 중복되는 8부를 제외하고 총 67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25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근무기관 평가특성, 평가도구영역별 사용 현황, 평가에 대한 지식 및 교육 참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관특성별 평균 평가도구 사용수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은 Excel를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은 25세 이하가 14명(20.9%), 26~35세가 43명(64.2%), 36세 이상이 10명(14.9%)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3년제 졸업이 25명(37,3%) 4년제 졸업은 35명(52.2%), 석/박사는 7명(10.4%). 임상 경력은 1~2년이 17명(25.4%), 3~6년이 27명(40.3%), 7~10년이 14명(20.9%), 10년 이상이 9명(13.4%)이었다. 근무 기관은 아동 센터 2명(34.3%), 의원 13명(19.4%), 복지관 9명(13.4%), 재활병원 8명(11.9%), 대학병원 7명(10.4%), 어린이집 7명(10.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아동작업치료사 근무기관에서의 평가특성

아동작업치료사의 평가 대상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발달 지연(98.5%), 자폐스펙트럼장애(91.0%), 지적장애(88.1%), 선천성기형 및 변형(64.2%), 뇌성마비(62.7%), 언어장애(56.7%),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53.7%), 외상성 뇌손상(35.8%), 유전 및 염색체 이상(34.3%), 시각장애(32.8%), 청각장애(25.4%), 기타(3.0%)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평가 시 소요되는 시간은 30~60분이 전체 응답자 중 48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평가 주기는 6~9개월이 20명(29.9%)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기관특성별 평균 평가도구 사용 수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관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7)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Age	≤25	14	20.9
	26~35	43	64.2
	36≤	10	14.9
Education	Bachelor(3 years)	25	37.3
	Bachelor(4 years)	35	52.2
	Master/doctor	7	10.4
Clinical experience (year)	1~2	17	25.4
	3~6	27	40.3
	7~10	14	20.9
	10≤	9	13.4
Place of employment	University hospital	7	10.4
	Rehabilitation hospital	8	11.9
	Clinic	13	19.4
	Center	23	34.3
	Welfare center	9	13.4
	Nurseries	7	10.4

Table 2. Evaluation characteristics of child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stitutions (N=67)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Type of disability (multiple responses)	Developmental delay	66/67	98.5
	Autism spectrum disorder	61/67	91.0
	Intellectual disability	59/67	88.1
	Chromosomal abnormality	43/67	64.2
	Cerebral palsy	42/67	62.7
	Language disorder	38/67	56.7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36/67	53.7
	Traumatic brain injury	24/67	35.8
	Congenital malformation, deformation	23/67	34.3
	Visual impairment	22/67	32.8
	Hearing impairment	17/67	25.4
	Etc.	2/67	3.0
Initial evaluation time(min.)	≤30	13	19.4
	30~60	48	71.6
	60≤	6	9.0
Re-evaluation period (month)	1~3	9	13.4
	3~6	18	26.9
	6~9	20	29.9
	9~12	8	11.9
	1≤	12	17.9

Table 3. Number of average evaluation tools used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N=67)

Characteristic	Categories	Number of tools average (M±SD)	F
Institution	Welfare center	11.1±4.93	1.36
	University hospital	10.4±3.04	
	Rehabilitation hospital	9.63±5.12	
	Clinic	8.1±3.57	
	Center	7.3±3.43	
	Nurseries	7.8±7.1	

*p<0.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평균 11.1개로 가장 많은 평가도구 및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학병원 10.4개, 재활병원 10개, 의원 8.1개, 어린이집 7.8개, 센터 7.3개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각 기관별 사용되는 평가도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교적 병원이 다른 기관보다 많은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3).

4.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

기관 별 사용되는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센터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DDST-II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병원은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전체 응답자 중 100%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병원은 Wee-FIM가 75%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는 의원 85%, 센터 88%, 복지관 78%, 어린이집 71%의 빈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rend of use of inspection tools by institutions (N=67)

Characteristic	Categories Evaluation tool	n	%
University hospital (n=7)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7	100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HFT)	7	100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6	86
	Bayley scales of infants development (BSID)	6	86
	Box and block Test (BBT)	5	71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	5	71
Rehabilitation hospital (n=8)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8	100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6	75
	Oral motor observation	6	75
	Box and block Test (BBT)	4	50
	Range of motion test (ROM)	4	50
	Muscle tone test (MMT)	4	50
Clinic (n=13)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13	100
	Sensory profile (SP)	11	85
	Clinical observation	10	77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DTVP)	8	6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6	46
Center (n=25)	Sensory profile (SP)	22	88
	Canadian occupation performance measure (COPM)	14	56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13	52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DTVP)	12	48
	Clinical observation	10	40
Welfare center (n=9)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8	89
	Sensory profile (SP)	7	78
	Clinical observation	7	78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DTVP)	7	78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6	67
Nurseries (n=7)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	6	86
	Sensory profile (SP)	5	71
	Clinical observation	5	71
	Canadian occupation performance measure (COPM)	4	57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4	57

5. 평가도구영역별 사용 현황

아동 작업치료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도구 영역을 살펴본 결과 발달(94.0%), 감각-지각(91.0%), 이학적 검사(86.6%), 운동/실행(64.2%)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Table 5).

6. 아동평가도구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지식수준 및 교육 참여 욕구

응답자의 37명(55.2%)이 평가도구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30명(44.8%)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도구 사용에 있어 본인의 지식수준을 묻는 응답에 42명(62.7%) 대체로 자신의 지식수준을 낮게 평

Table 5. Usage status by evaluation tool area (N=67)

Categories	n	%
Development	63/67	94.0
Sensory-perceptual	61/67	91.0
Physical examination	58/67	86.6
Motor / Praxis	43/67	64.2
Activities of daily living	41/67	61.2
Occupational performance	36/67	53.7
Play	20/67	29.9
Cognition	20/67	29.9
Social participation	8/67	11.9
Education	6/67	9.0

가하고 있었다. 매뉴얼 기반에 평가도구 사용의 중요성 질문에 66명(98.6%)이 긍정적인 답변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66명(98.6%)이 평가도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작업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기관별 사용하는 평가도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3주간 현재 임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67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기관별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관 11.1개, 대학병원 10.4개, 재활병원 10.0개, 의원 8.1개, 센터 7.3개, 어린이집 7.8개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학병원이 평균 10.8개로 다른 기관에 비해 평가도구가 많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Park & Yoo, 2002). 최근 작업치료 서비스는 의료중심 재활에서 지역사회 재활로의 변화 추세를 보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자 역할을 수행한다(Min, Kim, & Woo, 2020; Myers et al., 2016). 이러한 작업치료영역의 변화는 기관별 사용되는 평가도구 수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도구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DDST-Ⅱ,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WeeFIM을 재활병원은 DDST-Ⅱ와 WeeFIM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영역별 평가도구 사용현황에서 COPM, Wee-FIM, DTVP, DDST-II의 사용이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Lee, Houng, & Park, 2018). 병원의 평가도구 사용은 건강보험수가와 연관성이 있으며, 제도방식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평가보다는 치료에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 Bae, 2019; Yoo, Jung, Park, & Choi, 2006). 이러한 결과는 병원급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아동의 증상에 따라 평가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료사들의 치료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원, 센터, 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평가도구 간 순서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DDST-Ⅱ, WeeFIM, COPM, SP, 임상관찰, DTVP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15; Lee, Houng, & Park, 2018). Kim(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설기관은 평가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싼 평가도구의 가격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표준화 형식의 설문지나 이학적 검사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사용되는 평가도구 수는 발달평가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아동 연구 주제 분석에서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요소가 51.2%로 매우 높게 측정된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 Min, 2016). Bundy, Lane과 Murray(2002)는 평가자는 먼저 작업과 역할의

수행을 고려하고, 일상에서 개인의 역할과 활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기능 또는 다른 수행 요소를 평가해야 하며, Kim(2019)은 작업치료사는 아동의 손상에 초점을 둔 평가를 뛰어넘어 삶의 상황에서 참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작업치료사들이 평가도구 사용범위를 넓혀 다양한 중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평가도구 영역으로는 교육평가 도구 9.0%, 사회참여 평가도구가 11.9%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개발될 필요가 있는 평가영역의 사회적 참여가 55.3%로 임상적 필요성이 높다는 결과와 연관성이 있었다(Lee, Hong, & Park, 2018). 본 연구에서 아동 참여 평가도구는 사회성숙도 검사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뷰와 임상관찰이 추가로 실시되고 있었다. 일부 표준화된 국외 도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내용과 항목, 결과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Custers, van der Net, Hoijtink, Wassenberg-Severijnen, Vermeer, & Helders, 2002; Lee, Yoo, Jung, Park, Lee, & Lee, 201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향후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적-상호작용 평가도구의 개발과 국내 번안 및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55.2%가 임상에서 평가도구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본인의 평가 관련 지식수준을 묻는 응답에 62.7%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대체로 자신의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치료사들이 자신의 치료 관련 지식에 대해 낮게 평가하며, 높은 전문교육의 필요로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15). 아동 영역은 임상실습기관이 적어 학생들이 면허가 있어도 졸업 후 바로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이며 실제로 실습에 나간다고 하여도 기관 규정상 실제 평가와 치료가 실습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 아동작업치료사의 경우 적합한 평가를 선택, 실시, 해석하고, 중재 목표를 설정하여 중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Kim, Chang, Lee, Chang, Kim, & Hong, 2017; Nam, Kim, Kim, & Lee. 2019). 또한, 대부분의 아동 작업치료사는 '전문성'의 하위역량 중 '중재 기술'과 '평가기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임치료사의 교육요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을 때 '평가기술'과 '분석기술'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Jung & Lee, 2022; Lee & Jung, 2022). 이처럼 많은 치료사가 평가도구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갈망하지만 Korea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2021)의 연간 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SP, 임상관찰, SPM 평가도구 교육이 연간 1회 50~70명에 적은 횟수와 제한된 인원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회에서는 다양한 평가도구 교육 제공 및 교육 횟수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아동 작업치료 분야의 평가도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글판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Second edition(PDMS-2)의 구성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Evaluation in Ayres Sensory Integration® (EASI)의 번역 및 구성타당도 연구와 같이 다양한 영역의 평가도구가 국내 아동 실정에 맞추기 위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Kim, Jang, & Hong, 2021; Kim, Lee, Jung, Choi, & Hong, 2021). 또한,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와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에서는 Sensory Profile 2, 임상관찰, Bayley,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등의 평가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발달평가사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 and School, 2022; Korea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1). 이에 치료사들은 개발되고 번안되는 평가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하며 기관은 치료사들의 치료적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도구 도입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발달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평가도구 전문 과정에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아동영역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평가도구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임상에서는 기관별 직무와 치료하는 대상자들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대부분 동일하며, 기관 내 배치된 평가도구의 한정, 각기 다른 평가도구 사용 방법으로 치료사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아동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기관별 평가도구 사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해 확인해 보았지만, 영역별로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관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의 치료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아동작업치료 분야의 평가도구 사용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동작업치료영역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체계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도구 도입과 평가도구 교육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 아동 작업치료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를 기관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후 평가도구 도입에 대한 제도적 마련 및 평가도구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의 사용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자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관별 사용하는 평가도구 수는 복지관이 11.1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병원은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100%), WeeFIM(86%), Bayley scales of infants development(86%) 순으로 사용하였고, 재활병원은 WeeFIM(75%), 구강운동관찰(75%), Box and block Test(50%) 순으로 사용하였다. 의원, 센터, 복지관, 어린이집은 순위에 차이가 있으나 Sensory profile, 임상관찰, COPM, WeeFIM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구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0명(44.8%)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66명(98.6%)이 평가도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내 아동 작업치료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를 기관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후 평가도구 도입에 대한 제도적 마련 및 평가도구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Asher, I. E. (2014). *Asher's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s: An annotated index*.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Incorporated.

Bundy, A. C., Lane, S. J., & Murray, E. A. (2002).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Davis Company.

Choi, J. S., & Hong, E. (2017). Job analysi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Focused o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5*(2), 1-21. doi:10.18064/JKASI.2017.15.2.001

Custers, J. W., Van der Net, J., Hoijtink, H., Wassenberg-Severijnen, J. E., Vermeer, A., & Helders, P. J. (2002). Discriminative validity of the dutch 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3*(10), 1437-1441. doi:10.1053/apmr.2002.3483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1). *Medical review·evaluation guide*.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ong, E. K., & Kim, K. M. (201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4), 29-42.

Jo, E. M., Jeong, Y. J., Choi, Y. M., & Yoo, E. Y. (2015). Current trends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 and School, 16*, 22-33.

Jung, H., & Lee, J. H. (2022). Investigating professional competency and the needs of training for occupational therapists using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 26-38. doi:10.18064/JKASI.2022.20.1.26

Kim, B. R., Kim, K. M., Jang, K. Y., & Hong, E. K. (2021). Study of construct valid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second edition (PDMS-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9*(3), 32-43. doi:10.18064/JKASI.2021.19.3.32

Kim, I. S. (2015). A survey on a status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3*(2), 1-19. doi:10.18064/JKASI.2015.13.2.001

Kim, K. M., Chang, K. Y., Lee, H. S., Chang, M. Y., Kim, H., & Hong, E. K. (2017).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clinical practi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5*(4), 87-100. doi:10.14519/jksot.2017.25.4.07

Kim, K. M., Lee, J. H., Jung, H., Choi, J. S., & Hong, E. (2021). A translation and construct validity study of the evaluation in Ayres Sensory Integration®(EAS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9*(1), 24-38. doi:10.18064/JKASI.2021.19.1.24

Kim, S. Y. (2019). The validity of activity participation assessment fo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7*(1), 19-29. doi:10.18064/JKASI.2019.17.1.019

Kim, S. Y., & Min, Y. S. (2016). Literature review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and youth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Focusing on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4*(4), 161-174. doi:10.14519/jksot.2016.24.4.12

Korea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1. 4. 7). *Training schedule for 2021*. 7 February, 2023. Retrieved from http://www.kasiorg.org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2021. 12. 21).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 for the 49th occupational therapist, 38th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r and 10th level 1 and 2 speech rehabilitation examination in 2021*. 15 May, 2022. Retrieved from https://www.kuksiwon.or.kr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2). *Occupational therapist work status*. 5 May, 2022.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pds/stat.jsp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 and School. (2022. 3. 14). *Training schedule for 2022*. 10 February, 2023. Retrieved from http://child.tium.co.kr

Lee, H. S. (2011). A survey of the core job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different job tasks depending on the therapist's experience in years and different treatment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1), 1-14.

Lee, H. S., Park, S. H., Kim, Y. J., Noh, C. S., Yoon, Y. Y., & Lee, K. M. (2015). Practice analysis among Korean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4), 17-33. doi:10.14519/jksot.2015.23.4.02

Lee, J. H., & Jung, H. (2022). Educational needs and self-assessment for competency of newly employed therapists using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 1-10. doi:10.18064/JKASI.2022.20.2.01

Lee, S. H., Hong, C. R., & Park, H. Y. (2018). Current trend in use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6*(3), 23-33. doi:10.18064/JKASI.2018.16.3.023

Lee, S. H., Yoo, E. Y., Jung, M. Y., Park, S. H., Lee, J. S., & Lee, T. Y. (2010).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3), 103-117. doi:10.1023/A:1005160717081

Min, K. C., Kim, E. H., & Woo, H. S. (2020). Job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mmunity occupational therapist: Focus on OTs in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0*(3), 37-52. doi:10.18598/kcbot.2020.10.3.04

Myers, N. A., Smith, K., Pope, A., Alolayan, Y., Broussard, B., Haynes, N., ... Compton, M. T. (2016). A mixed-methods study of the recovery concept, "a meaningful day,"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2*, 747-756. doi:10.1007/s10597-015-9971-4

Nam, K. Y., Kim, K. M., Kim, M., & Lee, J.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based intervention course curriculum of the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7*(3), 26-45. doi:10.18064/JKASI.2019.17.3.026

Park, J. Y., & Bae, W. J. (2019). The use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occupational therapists in long-term care hospital.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13*(1), 23-31. doi:10.34263/jsotad.2019.13.1.23

Park, S. Y., & Yoo, E. Y. (2002). The use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0*(2), 99-108.

Woo, H. S., Chang, K. Y., Cha, T. H., & Oh, J. C.(2009). A study of the status of dysphagia rehabilitation conduct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7*(3), 66-77.

Yoo, E. Y., Jung, M. Y., Park, S. Y., & Choi, E. H. (2006). Current trends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4*(3), 27-37.

Yoo, E. Y., Lee, J. Y., Kim, J. R., Cha, Y. J., & Park, H. Y. (2012). A study on a rehabilitation service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preliminary survey based o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3), 1-14.

Abstract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Use of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Tools in Relation to the Type of Therapy Institution

Gil, Young-Suk[*], BS, O.T., Yoo, Doo-Ha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use of assessment tools by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with children in Korea.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67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with children in Korea. To investigate the use of evaluation tools by area, knowledge of the evaluation tools, and desire to participate in further education, the questionnaires used in studies by Lee, Hong, and Park (2018) and Kim (2015)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child evaluation tools currently in usein institutions in Korea. For data collection, we distributed Google questionnaires to child occupational therapists for 3 weeks using convenience sampling. Excel was used to analyze the use of the evaluation tools according to institution. Technical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es were used to ver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valuation-related information, status of evaluation tool use, knowledge levels relating to evaluation tools, and desir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 t-test was used for the evaluation tool status.

Results : Welfare centers used the most evaluation tools, with an average of 11.1, followed by university hospitals, rehabilitation hospitals, clinics, and daycare cent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oice of tools used, hospital with the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and the Wee-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being the most frequently applied. Centers, daycare centers, and welfare center the Sensory Profile test and clinical observation were also used often. Regarding the level of knowledge of evaluation tools and the desire to participate further in education, 30 (44.8%) of the respondents had not completed their education, and 42 (62.7%) rated their knowledge level as generally low. When asked about the importance of using a manual to guide them in their use of evaluation tools, 66 (98.6%) answered positively, and 66 (98.6%) answered that they needed specialized training in the use of evaluation tools.

Conclusion :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use and status of evaluation tools as used by different institutions in Korea in the field of child occupational therapy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provide the basis for introducing existing evaluation tools and preparing new evaluation tools to be used in this field in Korea.

Key words : Child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tools, Occupational therapy